

월요일에 끝나지 않는 월요일, 화요일 온라인 쇼핑으로 이어져 크리테오, 2018년 1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뷰 발표

- 온라인 쇼핑 월요일~화요일, 오전 업무시간과 취침 전에 집중적으로 발생
- 인앱(In-App) 거래 비중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모바일 웹보다 5배 이상 높은 구매전환율 보여
- 다양한 디바이스 관통하는 데이터 중심 소비 패턴 분석 및 최적화 전략 중요

[크리테오 보도자료=2018.05.28] 일주일 중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요일은 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전문기업 크리테오(한국지사 대표 고민호)가 전 세계 및 국내 소비자들의 쇼핑 활동과 행태, 선호도에 관한 인사이트를 담은 '2018년 1분기 글로벌 커머스 리뷰(Global Commerce Review)¹'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사이트 요일별 데이터 집계 결과,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디바이스에 걸쳐 온라인 쇼핑이 가장 활발한 요일은 화요일(19.6%)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각 17.6%, 17.2%로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증가하다가, 수요일부터 점차 감소해 토요일(9.4%)에 최저점을 기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주초에 온라인 쇼핑이 활발히 이뤄지며, 반대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휴식에 집중하는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이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대 별로는 잠들기 전 시간대(오후 9시부터 11시)와 오전 업무 시간대(오전 9시부터 12시)가 가장 두드러졌다. 잠들기 전에는 주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반면, 오전 업무 시간에는 데스크톱 이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후 업무 시간과 퇴근 전후 시간대에는 사용 디바이스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퇴근 시간 후에는 사용 디바이스가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디바이스에서는 모바일, 특히 인앱(모바일 앱 내 결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동북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미 온라인 거래의 50%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쇼핑 앱을 통한 구매가 전체 모바일 거래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

¹ 이번 글로벌 커머스 리뷰는 2018년 1분기 동안 80여 개 국가, 5,000개 이상의 판매업체의 개인 브라우징 및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인앱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쇼핑 앱 이용자의 고객 전환율은 모바일 웹보다 5배 이상 높아 인앱을 통한 기회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커머스 리뷰의 전체 내용은 [크리테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 대한 요약 및 리포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테오 고민호 대표는 “옴니채널, 인앱 결제 등으로 온라인 쇼핑 여정이 더욱 원활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러 디바이스를 넘나들며 일관된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마케터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구매 채널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소비 패턴 분석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디바이스와 채널, 시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번 크리테오 글로벌 커머스 리뷰가 마케터들에게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최적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회사소개>

크리테오(NASDAQ: CRTO)는 소비자 구매 여정 전 단계에 걸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브랜드와 리테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 해주는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기업이다. 2,700명의 크리테오 직원들이 전 세계 18,000개 고객사들과 수 천 개 프리미엄 매체사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여 높은 마케팅 퍼포먼스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크리테오는 연 6,000억 달러가 넘는 커머스 매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기업의 마케터와 매체사들이 협업을 통해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커머스 마케팅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홍보회사 미디컴

김지훈 과장 (02-6370-8537/010-6808-6910/ jhkim@medicompr.co.kr)

신해인 대리 (02-6370-8518/010-8766-3090/ hishin@medicompr.co.kr)

오시학 대리 (02-6370-8539/010-3017-3565/ kundera@medicompr.co.kr)